

국내 소식

전기설비 기술기준 골 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고지압전선절연화, 주택의 누전차단기부착, 외등의 고효율방전등 사용, 스코트결선 변압기내압시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골 제정된다.

상공자원부는 지난 7월 9일 전기회관에서 전기설비 기술기준제정(안) 공청회를 갖고, 그동안 상공자원부령이던 전기설비기술기준규칙을 폐지하고, 이같은 내용의 상공자원부 고시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바뀐 것은 '90년 전기사업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급변하는 전기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정안은 금명간 확정될 예정인데 철도용 나동선이 일부남아 있는 고지압전선을 교체할 때 모두 절연화하도록 하고, 인체보호를 위해 주택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부착도록 하는 한편, 전기절도에 수용되는 스코트결선 변압기의 내압시험을 추가했다.

제정안은 또한 220V승압이 80% 이상 진행됨에 따라 현행 100/200V위주규정을 220/380V위주규정으로 변경하고 600V이하의 저압을 세분화 400V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 400V이상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했다.

제정안은 이밖에 설비 수요가 없어 사문화된 5.7kV고압다중접지선로 규정, 목제볼드, 점검불가 애자공사규정 등을 삭제했다.

한전, 하계 낮시간대 전기요금

내년부터 더 올려

내년부터 심야시간의 2.5배로 가장 높은 전기요금을 물고 있는 하계의 주간시간이 현행 6월부터 8월 사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7~8월중 오전 10~12시, 오후 2~5」로 줄어들고, 대신 현행 하계주간시간대 전기료가 더 비싸진다.

상공자원부는 지난 7월 5일 하계를 3개월에서 2

개월로 주간시간대를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고, 현행 심야전기요금인 25원 30전보다 2.5배나 많은 63원 50전을 하계주간요금으로 책정해 차등폭을 확대하는 「계절별 시간대별차등요금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계절 구분을 하계(6~8월)와 태계(9~5월)의 2단계에서, 하계(7~8월), 춘추계(4~6월, 9월), 동계(10~3월)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높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하계기간을 줄이고 하계기간중에서도 가장 높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최대부하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에서 오전 10~12시, 오후 2~5시까지 5시간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또 중부하시간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경부하 요금단가를 적용, 요금부담을 줄였다.

반면에 여름철 최대부하시간대의 전력수요를 다른 시간대로 이동시키기 위해 여름철 최대부하시간대에 적용되는 요금단가를 현재보다 다소 높이되, 높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하계기간과 최대부하시간대(주간시간대)를 줄여, 수용가의 연간 전기요금부담액은 현재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한편 상공부는 이같은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개선안을 시행키 위해 7월 5일부터 계약전력 5,000kW이상 공장과 대형빌딩 838개소에 다기능전자식전력량계를 설치해 주고 있다.

전기협회, 전력수요와 전기소비절약에 관한 세미나 개최

전력수요관리와 전기소비절약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7월 16일 대한전기협회주관으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회관에서 열려, 전기기기효율개선에 의한 전력수요관리잠재량 분석과 환경개선효과 등에 대해 심층적인 토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한 올해 10월 수정 예정인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수요관리부문을 확충, 반영하는 것과 전기사용합리화 정착유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력수요관리에 대해 김종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근 서울대 교수, 김창섭 에너지자원기술센터연구원, 최종하 에너지관리공단이사, 김문덕 한전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전력수요관리는 발전설비확충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력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전력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보존 효과도 아울러 성취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한편 서울대학의 한민구 교수는 전력사업과 기술개발에 대해, 전국주부교실중앙회의 김조한사무처장은 에너지절약이란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에너지절약 신바람 캠페인 전개

여름철 에너지절약 신바람 캠페인이 지난 7월 2일 에너지절약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올여름 더위를 부채로 이겨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실시된 신바람 캠페인에는 에너지관리공단 14개 시·도지부(소) 및 부설기관, 한국청년회의소 3백 65개 지방회의소, 바르게 살기운동본부 15개 시·도지부 및 2백 76개 구·군지부, 한국여성연맹 등 전국적으로 약 4만명이 참여했다.

에너지절약 기자재전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조명기기, 컴퓨터 및 절수기자재의 홍보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과천 정부종합청사 후생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4일가지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11개 업체에서 절전효과가 30% 이상되고 조명기기는 1등급제품이 전시되었다.

참여업체 및 전시품목은 금호, 신팣(3파장형광램프), 동명(할로겐램프), 보암(차밍라이트 데코램프), 송광기전(자동조명절전기), 선우전자(무선조명스위치 시스템), 한에너지피아(절전센서라이트), 진홍전자, 매직셀프(전자감응식수도꼭지), 삼성전자(절전컴퓨터), 산업전자(퍼스널컴퓨터 센서용 절전기) 등이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종합청사에서 2번째 개최된 것이다.

해외 소식

UPS 등에 사용되는 바테리

미국의 앤서니 엑시드사는 최근 다양한 용도의 바테리를 시리즈로 내놓았다.

모델형 「NP 시리즈」인 이 바테리는 UPS(부정전전원장치)나 통신산업에 쓰이는 각종 기자재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외함은 금속으로 포장돼 화재에 강하다.

새로운 스위칭모드 전원공급장치 개발

프랑스의 한 전력회사는 새로운 스위칭모드 전원공급장치를 개발, 시판하고 있다.

이 장치는 PMOS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디지털로 조정이 가능하며 0.2오옴 정도의 아주 작은 사용중의 저항으로 누설전압이 거의 없다.

S08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섭씨 25도에서 2W, 섭씨 1백도에서는 0.8W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며 사용할 수 있다.

이 스위칭모드 전원공급장치는 전전지의 사용수명이나 이동형 컴퓨터의 바테리 사용수명을 동작시킬 때만 전원을 공급하므로써 2배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

파동보호장치 내장된 제동기 개발

모델형 1612 제동기가 최근 미국 마친스사에 의해 개발됐다.

이 제동기는 16개의 입력단자와 12개의 출력단자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LED배열이 되어 있고, 파동보호 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용도로 사용되는 조명기기 개발

미국 LSI라이팅 시스템사는 다용도록 사용되는 조명기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하향등, 상향등, 스포트라이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전주꼭대기 뿐만 아니라 벽위에 또 설치함안에 자유롭게 설치가 용이하다.

램프의 타입은 HPS와 MIH형태로 두종류이고 175W, 70W, 100W, 150W까지 적용된다.

전압조정기 「MJ-X」 선보

미국 시멘스에너지 & 오토메이션사는 최근 새로운 타입의 전압조정기 「MJ-X」를 선보였다.

이 기기는 출력·에너지모니터링, 결점요소 지적 등의 기능을 하는 정보란 「원도우」에 조절장치가 내장돼 있어 모든 부분을 통제한다.

또 데이터와 기타 자료를 정리하는 기능까지 포함돼 있다.

이 기기의 용량은 출력 에너지 요구사항 등 그 밖의 전압조절에 필요한 요인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회원(사) 소식

삼성전자, 고객위해 품질관리운동 적극참여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업계에서는 최초로 2년 연속 IBM 최우수 모니터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세계 최대 컴퓨터 메이커인 IBM이 지난 '89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고객중심의 품질관리 운동에 적극 참여, IBM이 제시하는 리더쉽과 전략적 품질기획, 정보 및 분석, 인력개발 및 관리, 공정 및 업무절차관리, 품질 및 경영실적 그리고 고객중심, 만족 등 모두 7개 심사항목에서 최우수 종합점수를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저원가 생산체계 구축과 낭비제거 및 현장개선 활동, 자동화 라인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고의 품질경쟁력 확보방안으로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고객지향의 품질경영체계확립을 비롯해 초관리 운동확산을 통한 원가절감 생산체계 구축, 현장중심 지도를 통한 지도효과의 극대화, 품질간접

회 등을 통한 정보교류의 확대 등의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같은 품질개선운동의 결과 삼성전자는 82년 이후 IBM과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한지 4년만인 86년에 1백만대의 모니터를 IBM과의 협력 개시 10년만인 작년말까지 총 4백만대의 모니터를 공급했다.

의제전기화원 강좌개설안내

- 건축전기설비사 기초개강반(8.29개강)
- 소방관리사반(9.1개강)

이훈병 전감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동우회 회장 선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동우회는 지난 6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훈병(하나기연 전기 소장) 협회 전 감사를 제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김승기 이사 PMC소양교육 실시

한국통신 대구사업본부는 지난 6월 3일 김승기 이사를 강사로 초빙 소속 전기기술자 50여명을 대상으로 PMC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대행사업체 설립 및 상호변경

<설립>

- 대구전기안전주식회사(대표: 이종진)
 - 대 표 : 이종진
 - 인가번호 : 경북 93-2
 - 주 소 : 경북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01-2
 - 전 화 : (053) 637-0127~8

<상호변경>

- 경북전기안전관리(대표: 박장식)→경북전기관리 주식회사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전 전북지부장 황우일 사망(8월 2일)